

# 차세대 AI 태블릿 PC 경쟁 '활활'

## 갤럭시 탭 S10 vs 아이패드 미니

<삼성>

삼성 '갤럭시 AI' 대화면 최적화 S펜 기본 제공... IP68 방수·방진

애플 3년만에 미니 신제품 출시 A17 프로 탑재... 인텔리전스 지원



갤럭시 탭 S10 울트라. /삼성전자



애플은 아이패드 미니(7세대) 이미지. /애플

삼성전자와 애플이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태블릿 PC 제품으로 또 한번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AI 스마트폰에 이어 AI 태블릿 PC를 연이어 내놓으며 본격적인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선 것. 삼성전자는 이달 갤럭시 탭 S10 시리즈를 선보인 한편 애플은 가장 작은 '아이패드 미니' 신작을 3년 만에 선보였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4일 '갤럭시 AI' 기능을 갖춘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0+'를 국내 출시했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갤럭시 탭 S10+의 화면 크기는 각각 369.9mm(14.6형), 315.0mm(12.4형)이며, 두 모델 모두 '다이나믹 AMOLED 2X'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다. 색상은 문스톤 그레이와 플래티넘 실버 등 2가지다.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와이파이 지원 모델과 5G 지원 모델로 각각 출시된다. 또한 디스플레이에는 반사광을 줄여주는 반사방지(AR) 코팅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빛이 밝은 곳을 비롯해 다양한 환경에서도 몰입감 있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

갤럭시 탭 S10 울트라와 S10+의 성능을 살펴보면 전자 대비 CPU(중앙처리장치)는 약 18%, GPU(그래픽처리장치)는 약 28%, NPU(신경망처리장치)는 약 14% 향상됐다.

특히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태블릿의 대화면에 최적화된 '갤럭시 AI' 기능을 제공한다. 또 AI 기반의 '대화 선명하게 듣기' 기능도 적용됐다. 시청 중인 영상 속 발화자의 목소리는 또렷하게 키우고 일부 배경 소리는 줄여줘

<애플>

아울러 갤럭시 탭 S10 시리즈는 실제 펜으로 종이에 글을 쓰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는 'S펜'이 기본 제공된다. IP68 방수·방진 기능을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애플은 '아이패드 미니' 신작을 3년 만에 선보였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 신작은 전작과 같이 휴대성을 유지하면서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한다. 가장 작고 가볍다는 점도 강점으로 내세웠다.

애플은 아이패드 미니(7세대)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다만 미국 등에서는 사전 구매가 시작된 한편, 한국 시장에서의 출시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이패드 미니 신작이 등장한 것은 2021년 6세대 이후 처음이다. 이번 아이패드 미니 신작은 21cm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면서 초경량 휴대용 디자인을 유지했다.

두뇌 역할을 맡을 칩으로는 'A17 프로'를 탑재해 휴대성을 유지하면서 성능 및 전력 효율성을 더 끌어올렸다. A17 프로는 전작의 A15 바이오닉 대비 뉴럴 엔진 처리 속도가 2배 가량 빨라졌다.

또한 아이패드 미니 신작은 애플 인텔리전스도 지원 가능하다. 아이패드 OS 18를 기반으로 AI가 언어와 이미지를 이해 및 생성하고, 앱을 넘나들며 필요한 동작을 수행해준다. 아이폰과 같이 애플 인텔리전스는 기기 내에서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며,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를 통해 온디바이스 방식과 애플 실리콘 서버 연동 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린 스케치를 AI가 깔끔한 이미지로 바꿔주는 '이미지 마술 붓', 사용자 맞춤형 지능을 제공하는 시리 성능 개선, 아이패드와 챗GPT의 통합 등이 향후 추가될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정부, 배추가격 안정화 팔 걷어

주중 김장재료 수급 대책 발표 송미령 장관, 재배농가 현장 점검



지난 16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배추 매대에 배추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게시된 모습. /뉴시스

정부가 이번 주 김장재료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충남의 한 배추 재배농가를 찾아 생육상황 등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20일 "국민들의 김장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해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홍성의 한 배추밭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배추 출하지역이 확대되고 품질이 좋은 가을배추가 출하되면서 도매가격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조만간 소비자 가격에도 반영돼, 국민들께서도 하락세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상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수확하는 김장배추는 현재 생육기를 지나 배추의 속이 차는 결구(結球)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기상과 생육관리에 따라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농식품부 측 설명이다. 또

김장 성수기인 11월 중하순에 주로 출하되는 전남, 충남, 전북 지역 작황이 상대적으로 더 양호해 수급에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된 '2024년 김장 의향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4%는 중국산 신선 배추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더라도 구매할 의향은 '없다'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소비자 550명을 대상으로 지난 10~14일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무응답·기타 등을 감안해도 이들 중 최소 500명가량은 사지 않겠다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UFG 신기술 적용... 커버화면 6.4인치 예상

(울트라 폴더블 글래스)

>> 1면 '삼성 갤럭시 Z폴드 SE'서 계속

이에 삼성전자는 AI를 더한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고급화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 1위를 탈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구체적으로 갤럭시 Z폴드 SE에 탑재되는 새로운 기능은 ▲4.9mm 얇은 두께 (펼쳤을 때) ▲힌지 주름 개선 ▲2억 화소 메인 렌즈의 트리플 카메라 ▲AP(앱 프로세서) 스냅드래곤8 3세대 탑재 등이 있다.

무엇보다 폴더블폰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힌지 주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SE에는 기존 폴더블폰에 사용한 UTG(울트라 썬 글래스) 대신 삼성전자의 새로운 울트라 폴더블 글

래스(UFG) 기술이 적용돼 주름을 전작 대비 줄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카메라 성능도 향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디자인은 수직 배열의 트리플 렌즈가 장착됐는데, 기존 폴드6와 달리 둥근 모서리의 사각형 카메라림이 적용됐다.

이밖에도 원활한 AI 기능도 도입한다. 스마트폰의 두뇌인 AP(앱 프로세서) 경우 퀄컴의 스냅드래곤8 3세대 칩 장착이 유력하다. 내장 메모리는 256GB, 512GB, 1TB 버전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디스플레이 크기는 커버 화면 6.4인치·메인 화면 8인치로 예상되며, 배터리 용량도 폴드6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일단 들어와!**

**모든 식품정보**

**푸드e음**

**에 다 있다!**

원재료

연구 장비

생산 장비

전문가

교육

데이터

[www.foodpolis.kr/fbip](http://www.foodpolis.kr/fbip)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063) 720-0500